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관계인구 활용전략

○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인구정책 도입 필요

- 수도권 인구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10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2019년에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여 2020년 수도권 지역으로 약 8만8천명이 순유입(통계청, 2021.1)
- 2020년,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순유입을 보인 시도는 세종(3.8%), 경기(1.3%) 등 6개 시도이며, 울산(-1.2%), 대전(-0.8%), 대구(-0.7%), 경북(-0.6%) 등 11개 시도는 인구유출
- 국가 차원에서도 지방소멸위기 문제를 인식하여,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 추진 규정 마련
- 인구감소지역 대책은 크게 적응 정책과 극복 정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이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 정책이며, 지역의 인구 유입 등을 목표로 하는 인구감소 극복 정책은 소수에 불과
- 지역의 인구유출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역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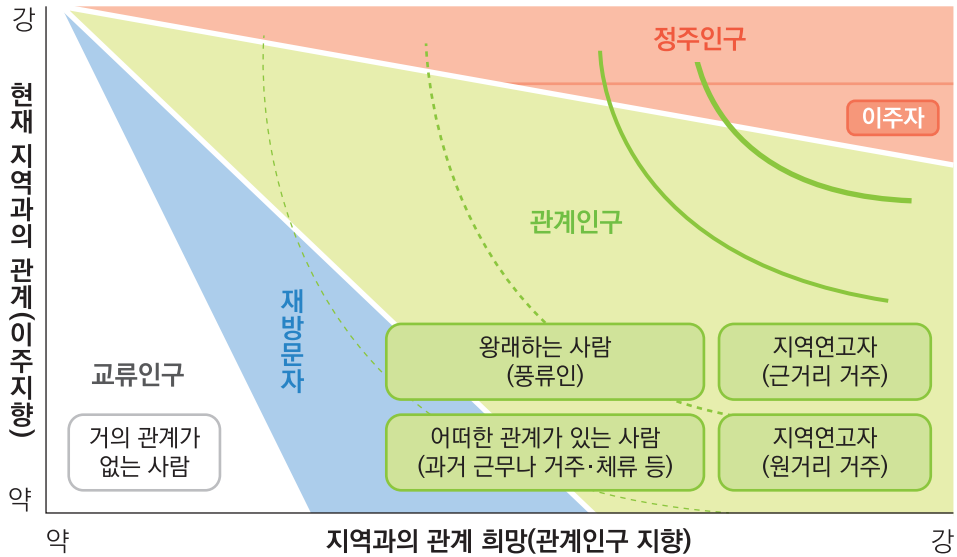
〈표 1〉 개정 균특법 제16조의 2 인구감소지역 시책 규정

구분	내용
적응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기준 마련 • 지역간 생활서비스 격차 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 •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등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 주민의 자율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마을 공동체 전문가 양성 등 주민역량강화 • 자치단체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행정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극복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관계인구의 개념 및 유형

- 관계인구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 2016년 일본 타카하시 히로유키(高橋 博之)의 저서 '도시와 지방을 섞다: 타베루 통신'에서 교류인구와 정주민 사이의 관계인구를 발굴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래
- 2016년 사시데 카즈마사(指出 一正)의 저서 '우리들은 지방에서 행복을 찾는다'에서는 관계인구란 '말 그대로 지역에 관계를 맺어오는 인구를 뜻하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지역에 주말마다 방문하거나, 빈번히 들르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을 응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
- 관계인구란 학술적인 배경에서 출발한 개념이기보다는 현장 용어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정책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2018년부터임
- 특정지역에서 일회성 관광인구 이상, 정주민 미만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관계인구의 범주는 다양하며, 일본 총무성은 이주지향과 관계인구 지향의 정도에 따라 '근거리 지역연고자', '원거리 지역연고자', '왕래하는 사람', '어떠한 관계가 있는 사람'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

〈그림 1〉 지역과의 관계성에서 본 관계인구의 형태



자료 : 總務省(2018), 'これからの移住・交流施策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 報告書(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568242.pdf, 2021년 3월 18일 검색)

- 지역과 관계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지역 만들기과 연결되는 기획을 제공하며, 지역과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협업하여 실천활동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모델사업 실시

〈표 2〉 일본 총무성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사업(2019)

구분	내용	
관계심화형	연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계인구를 모집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이 안의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지원
	고향납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납세 제도를 활용하여 고향에 일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부자에게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지자체에게 재정을 지원
관계창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과 지속적인 연계를 가질 기회나 계기를 제공하면서, 지역의 과제 혹은 요구와 관계인구가 될 사람의 지식·기술을 매칭하기 위한 중간지원기능을 조성하는 지자체에게 재정을 지원 	
주변확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부에 소재하는 개인·기업·단체(NPO·대학교 연구실 등)와 연계하며 도시부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게 재정을 지원 	
주변확대형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와 연계하면서, 방일외국인과의 교류를 촉진해서 지역(지역주민, 지역산업)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창출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게 재정을 지원 	

자료 : 總務省(2020), 「関係人口創出・拡大事業」

○ 한국의 관계인구 정책적용을 위한 관계인구의 조작적 정의 및 범위

- 관계인구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가, 업무,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라고 정의
- 관계인구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주민구와는 다른 인구 개념이나 일본의 관계인구처럼 교류인구와도 뚜렷이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 정책 도입에 용이
- 우리나라에서도 도농 교류, 재외국민 교류 등 다양한 교류 활동에 기반한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지만, 일본의 교류인구 정책과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음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채택하지만, 특별히 지역 정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정책대상 집단은 다음과 같이 설계 가능




〈표 3〉 국내 관계인구 정책유형 제시

구분	내용	내용	국내 유형
지역 연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지역 거주자 • 원거리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지원할 가능성 존재 • 정주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지역에 역할할 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향 도민회
지역 무연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경험자 • 자원봉사 경험자 • 여가생활 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 출신자가 아니더라도, 한때 해당 지역에서 근무, 체재경험이 있는 관련자 • 비즈니스나 여가생활, 자원봉사 등으로 해당 지역을 다수 오고 간 지역 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 지역 활동가 • 체류형 체험관광객 • 재방문 관광객

주 : 作野廣和(2019)이 제시한 관계인구의 양적·질적 유형을 한국의 여건에 맞게 연구자가 재정리

- 1차적으로는 출향 도민회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관계인구보다는 지역과 관련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관계인구를 대상으로 정책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

○ 한국의 관계인구정책 도입 예시

 잠재적 관계인구 집단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계인구 정책대상 집단의 발굴 및 육성 • 관계인구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정보플라자 구축 및 운영
 지역 체류 관심 유도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체류하며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체류형 관계인구의 유치 촉진 • 지방이주 촉진을 위한 현지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생활관광 체험형 / 농산어촌 체험형 / 지역 일자리 체험형
 지역 체류활동의 만족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체류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지역 이주 가능성 제고 • 만족도 영향요인인 장기 숙박·체류시설의 품질제고 및 다양한 지역주체를 활용한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마련

▶ 참고자료 : 이소영·김도형(2021), 「작지만 강한 연결 -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내용문의 : 이소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균형발전상생센터장, 033-769-9890, sy2@krila.re.kr)

▶ 지난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재용 부연구위원)

원문보기 >

✉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